

# 《백헌촬요》의 문건양식에 리용된 리두토에 대한 리해

전 금 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인민은 오랜 옛날부터 자기의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훌륭한 민족문화를 창조할수 있었으며 자기 민족의 아름다운 풍습과 전통을 계속 간직하여 올수 있습니다.》(《김일성전집》 제32권 354페이지)

언어를 떠난 민족문화란 있을수 없다.

우리 인민은 먼 옛날부터 자기의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우수한 민족문화를 창조하여 왔으며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풍습과 전통을 간직하여왔다.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에 의하여 한자가 서사생활에 쓰일 때에도 우리 인민은 한자를 우리 말의 어음체계와 문법구조에 맞게 변화시켜 사용하였다. 즉 한자의 뜻과 음을 리용하여 우리 말을 기록하는 독특한 서사체계인 리두를 창조하였다.

이 글에서는 민족고전 《백헌촬요》에 올라있는 문건양식을 통하여 조선봉건왕조말기 각종 공문서작성에 리용된 리두토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민족고전 《백헌촬요》는 19세기 중엽까지 나온 조선봉건왕조의 법조문들가운데서 중요하다고 보아지는 조항들을 뽑아서 수록한 법관계 서적이다.

이 책에는 서문이 없을뿐아니라 이 책과 관련된 자료가 전해오는것이 없으므로 정확한 편찬년대는 알수 없으나 책의 내용으로 보아 대체로 19세기 중엽으로 추정된다.

《백헌촬요》는 거의 모든 법관계 서적들과 마찬가지로 리전, 호전, 례전, 병전, 형전, 공전의 6전체계를 이루고있다.

이 책의 《례전》부분에 실려있는 문건양식에 대한 기록은 28개의 조항인데 그중 7개의 조항은 리두토를 사용하여 문건작성방법을 서술하였다.

무엇보다먼저 《백헌촬요》의 문건양식에 리용된 리두토들을 통하여 조선봉건왕조후반기 법관계 서적들에서의 리두토사용정형을 알수 있다.

조선봉건왕조후반기의 법전으로는 《대전통편》, 《대전회통》, 《각사수교》, 《수교집록》, 《결송류취보》, 《신보수교집록》 등이 있다.

이 가운데서 《수교집록》, 《신보수교집록》, 《결송류취보》에서는 리두토를 리용한것이 극히 적다.

실례로 《수교집록》에서는 《乙良(~을랑, ~은, ~인즉)》, 《良中(~에, ~에서, ~에게)》 같은 몇개의 리두토만을 리용하였다.

리두토를 많이 리용한 법관계 서적은 《각사수교》이지만 《각사수교》는 문장이 법조문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법조문적성격이 뚜렷하지 못하다.

특히 《각사수교》의 조항들에는 문건양식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백헌촬요》에서는 리두토를 리용하여 문건을 작성하는 방법을 양식화하여 규정하여 놓았다. 따라서 이 법관계 서적을 통하여 조선봉건왕조말기 법관계 서적들에서의 리두토 사용정형을 일정하게 파악할수 있다.

《백헌촬요》의 《례전》에는 해당 관청들이 봉건국왕에게 올리는 각종 보고문, 청원서와 관청들사이에 주고받는 공문, 관리들이 해당 관청들에 제출하는 신청서 등 여러 종류의 공문서양식이 실려있다.

봉건국가에서 지방의 장관이나 임금의 명을 받고 외국이나 지방에 파견된 관리가 서면으로 임금에게 보고하는 보고서의 양식인 《장계식》, 봉건국왕에게 보고하거나 제의하는 글의 양식인 《제본식》, 봉건국왕에게 보고하거나 제기, 청원하는 글의 양식인 《상언식》, 관리들이 해당 관청에 사임을 신청할 때 쓰는 글의 양식인 《정사식》, 관리들이 조상의 무덤을 찾아볼 때 해당 기관에 제출하는 청원서양식인 《소분식》, 아래관청이 상급관청에 보내는 보고문양식인 《첩정식》, 파오를 범한 관리가 그 경위에 대하여 대답하는 글의 양식인 《추고함답식》 등의 양식들은 리두토를 리용하여 작성되었다.

이것은 조선봉건왕조말기에 리두토가 적지 않게 사용되었으며 봉건국가의 통치배들과 일반관리들, 아전들에 이르기까지 리두토에 대하여 잘 알고있었을뿐아니라 그것을 많이 리용하여왔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다음으로 《백헌촬요》의 문건양식에 리용된 리두토들을 통하여 법조문작성에 널리 쓰인 리두토들에 대하여 알수 있다.

《백헌촬요》의 문건작성규정에 리용된 리두토들에는 《矣》, 《矣身》, 《矣段》, 《是如》, 《向教是事》, 《爲白只爲》, 《是白有昆》, 《爲白良置》, 《是白如乎》, 《爲白良結》, 《是白有亦》, 《爲白臥乎事》, 《是白如乎節》, 《爲只爲是良尔》, 《爲白良結望良白去乎》, 《向教是事望良白內臥乎事是亦在》와 같은것들이 있다.

이것들을 크게 두가지 부류로 갈라볼수 있다.

첫번째 부류는 상대방에 대한 말차림을 나타내는 토이다.

문건들에는 이런 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토들은 여러 토들에 련결되어 쓰인 형태로서 주로 존칭토형태인 《白》, 《教》에 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겸양의 뜻을 나타내었다.

여기에는 《向教是事》, 《爲白只爲》, 《是白有昆》, 《爲白良置》, 《是白如乎》, 《爲白良結》, 《是白有亦》, 《爲白臥乎事》, 《是白如乎節》, 《爲只爲是良尔》, 《爲白良結望良白去乎》, 《向教是事望良白內臥乎事是亦在》와 같은것들이 속한다.

우의 토들의 구체적인 의미와 쓰임을 보면 다음과 같다.

《向教是事》는 《~하시여야 할일, ~하옵신 일》이라는 뜻으로 거의 모든 문건양식에 다 쓰이였다.

《爲白只爲》는 《~하옵도록, ~하사옵도록》이라는 뜻으로 봉건국왕에게 보고하거나 제의하는 글이나 사임신청서와 같은데 쓰이였다.

례: 令該曹稟處爲白只爲謹具啓聞 月 日(啓本式)

《해당 조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사옵도록 삼가 문건을 갖추어 보고올립니다. 월 일》

《是白有昆》은 《①~이옵고서, ~이옵고는 ②~이시오므로, ~이옵기로, ~이옵기에 ③~이시오니》라는 뜻으로 사임신청서 등에 쓰이였다.

례: 臣矣父母在於某道某邑地是白如乎節病重是如專人來到是白有昆下去相見 爲白良結望良白去乎詮次善啓向教是事望良白內臥乎事是亦在謹啓 (呈辭式)

《소신의 부모들이 ××도 ××고을에 있는 때에 병이 중하다는 소식을 가지고 사람이 왔사옵기에 내려가 뵈기를 바라옵는 까닭에 비준하여주시기를 바라옵는다는것을 삼가 아뢰나이다.》

《爲白良置》는 《~하옵더라도》라는 뜻으로 사임신청서 등에 쓰이였다.

례: 恩暇調理云云爲白良置所患前症有加無減旬月之內差復(呈 辭式)

《임금의 덕택으로 휴가를 받아 병을 치료하였습니다. 그러하옵더라도 근심하는 바는 덜어지지 않고 더해만 가며 열흘안에도 차도가 없사옵니다.》

《是白如乎》는 《① ~이옵다는 ② ~이옵다고 하므로, ~이옵다고 하기에 ③ ~이옵더니》라는 뜻으로 조상의 무덤을 찾기를 청원하는 글에 쓰이었다.

례: 臣矣父母墳在某道某邑地是白如乎下去焚黃云云(掃墳式)

《신의 부모의 무덤이 ××도 ××고을에 있다고 하오므로 내려가 묘를 돌아보고 분황\*하려고 합니다.》\*누런 종이를 불태운다는 뜻으로 관직이 추증되면 자손이 벼슬을 추증받은 사람의 묘앞에서 누런 종이에 글을 써서 불사르는 의식을 이르는 말.

《爲白良結》은 《~하옵고저》라는 뜻으로 조상의 무덤을 찾아보기를 청원하는 글에 쓰이었다.

례: 矣妻父母歸葬事以某道某邑受由下去爲白良結云云(掃墳式)

《저의 안해의 부모가 돌아가서 장사를 지내려 ××도 ××고을에 휴가를 받고 내려가옵고저 이러이러합니다.》

《是白有亦》는 《① ~이었사오므로, ~이었삽기에 ③ ~이옵심이였으므로, ~이옵심이였기에》라는 뜻으로 파오를 범한 관리가 그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는 글에 쓰이었다.

례: 初行消息節公緘是白有亦(推考緘答式)

《처음의 소식과 사건의 전말을 물으셨사오므로 대답올립니다.》

《爲白臥乎事》는 《~하옵신 일》라는 뜻으로써 장제에 쓰이었다.

례: 事令該曹稟處或緣由馳啓爲白臥乎事詮次善啓向教是事 月 日(狀啓式)

《이 일은 해당 조에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는 일이지만 급히 보고올려야 하옵는 일인 까닭에 비준해주셔야 할것입니다. 월 일》

《是白如乎節》은 《① ~이옵다는 때, ~이옵다는 경우 ② ~이옵다는 지위》이라는 뜻으로 사임신청서 등에 쓰이었다.

례: 臣矣父母在於某道某邑地是白如乎節病重是如專人來到是白有昆下去相見爲白良結望良白去乎詮次善啓向教是事望良白內臥乎事是亦在謹啓(呈 辭式)

《소신의 부모들이 ××도 ××고을에 있사옵는 때에 병이 중하다는 소식을 가지고 사람이 왔사옵기에 내려가 뵈기를 바라옵는 까닭에 비준해주시기를 바라옵는 일이라는것을 삼가 아뢰나이다.》

《爲只爲是良尔》는 《~하시므로》라는 뜻으로 하급관청이 상급관청에 보내는 보고문에 쓰이었다.

례: 事云云爲只爲是良尔合行牒呈(牒呈式)

《일은 이러이러하오므로 응당 보고문을 올립니다.》

《爲白良結望良白去乎》는 《~하옵시기를 바라오니, ~하옵시기를 바라옵고서, ~하옵시기를 바라오므로》라는 뜻으로 국왕에게 올리는 청원서나 사임신청서, 조상의 무덤을 찾아 뵈기를 청원하는 글 등에 쓰이었다.

례: 臣矣段臣矣父母墳在某道某邑地是白如乎之未展省下去拜掃爲白良結望良白去乎詮次善啓向教是事(掃墳式)

《신은 소신의 부모들의 무덤이 ××도 ××고을에 있다고 하온데 아직 돌아보지 못했으므로 내려가 찾아뵈기를 바라옵는 까닭에 비준해주시기를 바라옵는바입니다.》

《向敎是事望良白內臥乎事是亦在》는 《~하옵신 일을 바라삽는 일이라는것, ~하옵시기를 바라옵는 일이라는것》라는 뜻으로 국왕에게 올리는 청원글, 사임신청서 등에 쓰이었다.

례: 天恩爲良白結望良白去乎詮次善啓向敎是事望良白內臥乎事是亦在謹啓 某月 某 (上言式)

《임금의 덕을 바라옵는 까닭에 비준해주시기를 바라옵는 일이라는것을 삼가 보고 올리나이다. XX월 XX일》

두번째 부류는 말차림토를 제외한 그 나머지 토들이다.

여기에는 《矣》, 《矣身》, 《矣段》, 《是如》 같은것들이 있다.

《矣》는 우리 말의 속격토 《~의》와 같은 의미로 쓰이었다.

례: 臣矣父母在於某道某邑地(掃墳式)

《소신의 부모들의 무덤이 XX도 XX고을에 있사옵니다.》

《矣身》, 《矣段》은 《나는, 내뎌, 나인즉》이라는 의미로 쓰이었는데 여기서 《矣》는 우리 말의 대명사 《나》와 같이 쓰이었다.

례: 矣身某病云云受由鍼灸(掃墳式)

《제가 XX병에 걸렸으므로 휴가를 받아 침을 맞고 뜸을 뜨려고 합니다.》

《是如》는 《~이다, ~이라고, ~이라는》이라는 의미로 쓰이었다.

례: 病重是如專人來到(呈 辭式)

《병이 중하다는 소식을 가지고 사람이 오다.》

이밖에 《上下》(차하: 임금이 아래사람에게 물건을 주는것을 이르는 말), 《詮次》(까닭, 연유, 때문)와 같은 리두어휘들이 부분적으로 쓰이었다.

이처럼 《백헌촬요》에서는 여러가지 리두토들과 일부 리두어휘들을 리용하여 문건을 작성하는 방법을 양식화하여 수록하였다.

이러한 문건양식들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것이 아니라 봉건국왕을 비롯한 지배계급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하고있으며 맹목적인 충군사상으로 임금을 우상화하고 있는것과 같은 심각한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다른 법관계 서적들에서 찾아볼수 없는 리두토관계자료들을 수록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일정한 사료적가치를 가진다.

이와 같이 민족고전 《백헌촬요》는 우리 나라 법관계 서적들중에서 처음으로 문건양식에 리두토를 리용한것으로 하여 조선봉건왕조말기 리두토의 사용형편을 연구하는데서와 리두토의 구체적인 쓰임을 연구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사료적가치를 가지는 민족고전의 하나이다.

우리는 앞으로 《백헌촬요》를 비롯한 가치있는 민족고전들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중요민족고전들에 대한 번역편찬사업을 빨리 끝내어 우리 인민의 값높은 향유물로, 나라의 재보로 되게 할데 대하여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말씀을 관철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